

**국제적 대북정책 공조 기반 구축을 위한
한미 양국간 북한경제 공동 연구**

2026. 09. 15. - 09. 20.



1 배경 및 목적

□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새로운 전환기에 진입

- 대외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군수·노동력·물류·관광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왔고, 그 사이 중국과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북한 대외경제의 상대국 구성과 결제·물류 구조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
- 다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북러 밀착 이후 북중 경제관계의 위상과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음.
- 대내적으로는 2026년 2월 19~26일 개최된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의 경제·국방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고, 국가 주도의 경제관리 기조는 한층 강화되는 양상. 여기에 환율·가격의 불안정,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확대, 산업구조 변화가 겹치면서 북한경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는 상황.
 - 특히 최근의 시장환율 움직임을 과거 패턴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있어 별도의 실증적 규명이 필요.
- 한편 산업·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축적되면서, 거시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던 구조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수산업, 불법 금융활동, 사이버 역량 및 신기술 활용에 높은 관심

-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군수산업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이는 대북제재의 실효성 평가와 직결.
- 가상자산 탈취, 불법 금융 네트워크,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이 특히 강해, 관련 정보와 분석을 한미가 공유할 실익이 큼.
- 북한이 인공지능을 교육·산업·국방 영역에 도입하려는 정황도 새로운 관찰 대상으로 부상.

□ 평가의 토대가 되는 북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함께 다룰 필요

- 북한경제에 대한 판단은 상당 부분 국제기구가 생산한 2차 통계에 의존하나, 정보 접근이 제약된 환경에서 수집된 자료는 무작위 표본추출의 부재, 정부 제공 단일 출처에 대한 의존, 독립적 현지 접근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 FAO/WFP의 작황·식량안보평가(CFSAM)는 2013년 9월 27일~10월 11일 조사를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실시되지 않았고, 2019년에는 성격이 다른 신속식량안보평가(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가 이루어졌을 뿐임. 그럼에도 FAOSTAT 등에 수록된 수치는 방법론적 유보 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음.
- 기관 간 추정치의 괴리가 통계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예: 1990년대 식량난)에 확대된다는 점은, 그 괴리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원자료의 신뢰도 문제를 반영함을 시사. 정책 판단의 근거를 다루는 자리에서 이러한 한계를 명시하는 것은 한미 공동연구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와도 직결됨.

□ 변화하는 북한경제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공유와 정책 공조의 중요성

- 미국 정부가 북한경제와 체제 변화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그 파급은 남북관계와 역내 안보환경으로 이어짐.
- 본 사업은 미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간 북한경제 정책대화를 지속·심화하고, 북한경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한미 공동연구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목적.
 - 제12차 회의(2026.9.17~18)에서는 ①북한 거시경제 동향과 제9차 당대회의 정치경제적 함의, ②기업·산업 자료 및 위성영상에 기초한 산업구조 변화와 군수 생산능력 평가, ③사이버·가상자산·AI를 포함한 불법경제와 비공식 부문의 소득 분화를 세 개 세션으로 나누어 논의.
- 아울러 회의에 앞서 9월 16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 주최 NK Economic Forum Roundtable에서 국제기구 북한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
 - GWIKS는 2016년 설립되어 엘리엇스쿨에 소속된 워싱턴 지역 한국학 거점 기관임.
 - 정책대화 본회의와 별도로 미국 학계·정책 커뮤니티에 북한 통계의 방법론적 쟁점을 제기하는 자리로 활용 가능.

2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26년 9월 15일(화) ~ 9월 20일(일) (*입출국일 포함 6일)

□ 주요행사 1

- 행사명: NK Economic Forum Roundtable
-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2:00 ~ 13:00
- 장 소: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 Conference Room
- 주 최: GWIKS
- 참 석: GWIKS, Stimson Center, 38North, KDI 등

□ 주요행사 2

- 행사명: 12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 일 시: 2026년 9월 17일(목)~18일(금)
- 장 소: 美재무부
- 주 최: 美재무부 & 재정경제부(MOFE)
- 참 석: 美재무부, 재정경제부(MOFE), KDI, BOK, PIIE, Stimson Center, CSIS, AEI, DTEX, SMI, 이화여대, 국방대

3 세부 일정

날짜	시간	주요일정	비고
09.15 (화)	10:25 ~ 11:05	인천 - 워싱턴 D.C - 남진욱, 김지윤, 탁성한	KE093 ICN 10:25 → IAD 11:05 (소요 13시간 40분)
	13:00 ~	호텔 체크인	State Plaza Hotel 2117 E St NW, Washington, DC 20037 Tel +1 202-861-8200

날짜	시간	주요일정	비고
	13:17 ~ 16:24	시카고 - 워싱턴 D.C - 김현희	AA789 ORD 13:17 → DCA 16:24 (소요 2시간 7분)
	15:00 ~ 16:00	한미 북한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논의 - Stimson Center, KDI	Stimson Center
09.16 (수)	08:00 ~ 16:02	샌디에이고 - 워싱턴 D.C - 이종규	UA1071 SAN 08:00 → IAD 16:02 (소요 5시간 2분)
	10:25 ~ 11:05	인천 - 워싱턴 D.C - 김규철, 이종민, MOFE, BOK	KE093 ICN 10:25 → IAD 11:05 (소요 13시간 40분)
	12:00 ~ 13:00	GW NKEF Roundtable - 남진욱, 김지윤, 김현희, 탁성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WIKS
	15:00 ~ 17:00	한미전략대화 사전 브리핑 - KDI, MOFE	State Plaza Hotel
	18:00 ~ 20:00	저녁 간담회 - KDI, MOFE, BOK, GW	CIRCA at Foggy Bottom 2221 I St NW, DC 20037
09.17 (목)	08:00 ~ 09:00	KDI-Brookings 공동연구 사업 논의 - 이종규, 임원혁(KDIS)	State Plaza Hotel
	10:00 ~ 11:00	한미전략대화 아젠다 논의 - 이종규, 김동준	State Plaza Hotel
	13:15 ~ 17:30	26년 한미전략대화 DAY 1 - 이종규, 남진욱, 김지윤, 김현희, 김규철, 탁성한, 이종민, MOFE, BOK	美 재무부 Cash Room, 도보 이동 (12:30 출발)
	18:00 ~ 20:00	공식 만찬	Bobby Van's Steakhouse 809 15th St NW, DC 20005, 도보 이동
09.18 (금)	10:00 ~ 12:00	26년 한미전략대화 DAY 2 - 이종규, 남진욱, 김지윤, 김현희, 김규철, 탁성한, 이종민, MOFE, BOK	美 재무부 Cash Room, 도보 이동 (09:15 출발)
	12:00 ~ 13:00	공식 오찬	美 재무부 Cash Room
	14:00 ~ 15:00	북한경제연구팀 회의 - 이종규, 남진욱, 김지윤, 김현희	Peet's Coffee

날짜	시간	주요일정	비고
	16:00 ~ 17:00	Brookings Institute - Zia Qureshi(브루킹스), 이종규	Brookings Meeting Room
	18:00 ~ 20:00	저녁 간담회 (Brookings) - Zia Qureshi(브루킹스), 김규철, 이종규, 정규철, 남진욱	Tonic at Quigley' s
09.19 (토)	09:00 ~ 10:00	호텔 체크아웃 및 공항 이동	차량 이동 (10:15 출발)
	13:15 ~ 17:40+1	워싱턴 D.C - 인천 - 김지윤, 김현희, 김규철, 탁성한, 이종민, MOFE, BOK	KE094 IAD 13:15 → ICN 17:40 (소요 15시간 25분)

4 주요 논의내용

1. NK Economic Forum Roundtable

□ 개요

-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2:00 ~ 14:00
- 장 소: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 Conference Room
- 참석자: 김연호, Bill Newcomb(이상 GWIKS), Bill Brown(NAEI), Rachel Minyoung Kim(Stimson Center), Troy Stangarone(KEIA), Hazel Smith(SOAS), Marcus Noland(PIIE), David Von Hippel(Nautilus Institute), 박성렬(통일부), 탁성한(SMI), 남진욱, 김현희, 김지윤(이상 KDI)
- 발 표: 김현희 KDI 북한경제연구팀 전문연구원
- 주 제: Food Assessment Under Government Control: North Korea's
FAO/WFP CFSA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 주요 내용

- 문제 제기: 북한 식량통계에 서로 독립적인 추정치는 몇 개인가
 - 북한은 농업생산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지 않음. 그 공백을 FAO 통계

DB(FAOSTAT)와 미 농무부 생산·수급DB(USDA PSD)의 추정치가 매워 왔고, 이 수치들이 널리 인용되어 있음

- 1995~2020년 FAO/WFP 작황·식량안보평가(CFSAM) 보고서의 쌀(벼 기준)·옥수수 생산 추정치를 FAOSTAT 북한 시계열과 대조한 결과, 소수점 단위까지 같은 해가 쌀 70%, 옥수수 86%
- 1996~98년 평균 36.6%였던 격차가 1999년부터 2.2%로 줄었음. 2008년의 문서화된 조정과 2012년 입력 오류로 보이는 사례 2건을 빼면 0.0%
- 북한에 관한 한 FAOSTAT은 CFSAM 수치를 이름만 달리해 실은 셈이어서, 둘을 서로의 검증 수단으로 쓸 수 없음. 발표는 "독립적인 추정치가 몇 개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삼고, 공표 수치의 원천인 CFSAM의 조사 방법을 검토 대상으로 설정
- 4개국 비교: 어느 출처끼리 수렴하는지는 정보 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짐
 - CFSAM이 반복 실시되었고 현지 접근성이 서로 다른 4개국을 선정
 - 저접근: 북한(보고서 22건, 통계기관은 있으나 대외 공표 없음), 시리아(9건, 분쟁으로 접근 제약)
 - 고접근: 에티오피아(18건, 통계기관 정상 작동, 북한 다음으로 긴 조사 이력), 스리랑카(6건, 대형 충격 발생 시 비정기 실시)
 - 두 출처씩 짝지어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을 보면 북한은 CFSAM과 FAOSTAT의 일치율이 79%로 가장 높음. 시리아(67%)와 스리랑카(56%)에서는 FAOSTAT과 USDA가 가장 많이 일치하고 CFSAM은 따로 떨어져 있음. 에티오피아는 세 조합 모두 낮음(최고 26%)
 - 같은 저접근국인 시리아에서 북한과 같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 수렴 여부는 현지 접근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정부의 정보 통제 강도에 좌우된다는 해석
- CFSAM 보고서 53건의 자기 진단
 - 1995~2023년 4개국의 공개 CFSAM 보고서는 55건. 이 가운데 자체 현지조사나 방법론이 없는 상황 공지문 2건(북한 2000.6, 스리랑카 2004.12)을 제외한 53건을 분석
 - 외부 평가 대신 보고서가 스스로 밝힌 내용을 근거로 세 가지 핵심 제약을 국가별로 비교
 - 조사 자율성(당국 통제 없이 방문지·표본을 정할 수 있는지): 북한 2013년 보고서는 표본이 작고 무작위로 추출되지 않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명시. 스리랑카 2023년 조사는 전국 25개 지역에서 600가구씩, 총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
 - 조사 지역 범위: 1999년 6월 북한 조사는 남포·평남·황남·황북 4곳만 방문. 에

- 티오피아(2003)와 스리랑카(2023)는 전 지역 방문
- 시장 접근: 2019년 북한 조사단은 농민시장을 방문하지 못했음. 에티오피아·스리랑카에서는 시장조사가 통상 절차
 - 위 세 가지에 표본 규모를 더해 4개 차원을 보고서별로 Yes(1)·Partial(0.5)·No(0)로 코딩하고, 국가 평균을 산출
 - 북한은 조사 자율성 0.21, 시장 접근 0.24로 4개국 중 최저. 표본 규모(0.50)는 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CFSAM 지침 기준(100~200가구)에 미달
 - 조사 지역 범위는 시리아(0.11)가 북한(0.35)보다 낮음. 다만 제약 요인은 북한이 당국 허가, 시리아가 분쟁으로 서로 다름
 - 고접근 2개국은 모든 차원에서 0.63~1.00. 저접근 2개국은 4개 차원 모두에서 이보다 낮음
- 북한 CFSAM의 시계열 변화: 접근성은 개선, 조사 자율성은 후퇴
- 1995~2004년 보고서와 2008~2019년 보고서를 비교하면 시장 접근은 0.07→0.67, 조사 지역 범위는 0.25→0.58로 상승
 - 초기 보고서 15건 가운데 조사단이 시장을 접촉한 기록은 1건뿐
 - 조사 자율성은 0.29→0.00으로 하락. 초기에는 2건이 Yes였으나 최근 보고서 5건은 모두 No
 - 표본 규모는 2008년 이전 보고서에 전국 표본 수가 기재되지 않아 비교 불가. 최근 수치(0.50)도 지침 기준에 못 미침. 2005~2007년에는 CFSAM이 실시되지 않음
- 강건성 점검(부록 A): 당해연도 추정치만으로도 결과 유지
- 수확 이듬해 이후 발간된 보고서는 이미 확정된 국가 수치를 옮겨 적었을 수 있음. 이를 배제하려고 수확 당해연도에 발간된 추정치(4개국 88개 국가·작물·연도)만 남겨 다시 비교
 - 북한은 18건 중 12건이 FAOSTAT과 1% 이내로 일치(격차 중앙값 0.0%). 나머지 3개국은 70건 가운데 일치 사례가 한 건도 없음(격차 중앙값 시리아 8.7%, 에티오피아 27.3%, 스리랑카 13.7%)
- 시사점
- 수치를 인용하는 쪽
 - 북한 쌀·옥수수에 대해서는 FAOSTAT을 CFSAM의 검증 수단으로 쓰지 말 것
 - 출처 간 수치가 일치하면 서로를 참조했는지, 같은 국가 통계에 기댔는지부터 확인할 것
 - 최근 수치의 생성 경로를 확인할 것. 2013년 이후 북한 시계열의 상당 부분은 FAO 세계식량농업 정보·조기경보시스템(GIEWS)이 현지조사 없이 작성한 데스크 업데이트이며, 이 기간 정식 현지조사는 1회

- 북한 사례를 접근이 어려운 국가 일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 것
- 수치를 생산하는 국제기구
 - 4개국 모두 같은 CFSAM 지침을 따르지만, 지침이 전제하는 접근 조건은 모든 국가에서 성립하지 않음
 - 보고서에 명시된 한계는 수치와 함께 FAOSTAT으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공표 데이터에 주의사항을 함께 실을 것
 - 조사가 해마다 이어지면 전년도 수치가 재검토됨. 공백이 생기면 수확기 추정치가 수정 없이 남으며, 북한은 네 차례 조사 공백이 있었음
 - 표본을 늘리고 접근 범위를 넓혀도 당국이 정한 표본틀 안에서 뽑는 한 대표성은 확보되지 않음

□ 기타 논의 내용

- 본 세미나의 목적 중 하나는 한미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신진 학자 부족 문제를 타개하는 것임.
- 한미전략대화가 12차례 개최되어 오며 참여자 중복으로 인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를 위해 KDI 북한경제연구팀 김현희 전문연구원이 발제했으며, 이어진 한미 전략대화에서도 참여함.
- 또한 재정경제부 남북경제과는 KDI 북한경제연구팀에 북한경제를 제대로 알리는 뉴스레터 발간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함.
- 뉴스레터에 대한 수요 조사를 본 세미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함.
- 참여자들은 뉴스레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나, 포함될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표함.
- 타 기관 콘텐츠와의 차별성이 떨어지면 뉴스레터는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 12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 개요

- 일 시: 2026년 9월 17일(목)~18일(금)
- 장 소: 美재무부
- 주 최: 美재무부 & 재정경제부(MOFE)
- 참 석: 美재무부, 재정경제부(MOFE), KDI, BOK, PIIE, Stimson Center, CSIS, AEI, DTEX, SMI, 이화여대, 국방대

□ 주요 내용

세션 1 (9.17) 북한경제 동향과 정치경제

○ 박영진(한국은행),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 1991년 이후 생산접근법으로 북한 GDP 추정(남한 가격·부가가치율 적용, SNA 기준)
- 2025년 실질 GDP 3.5% 성장으로 3년 연속 3%대 성장(2023년 3.1%, 2024년 3.7%). 북·러 경제협력 확대, 대중 무역 증가, 국가 주도 정책사업을 주요 동력으로 제시
- 제조업 6.6%(중화학 7.8%, 경공업 3.8%)와 건설업 6.3%가 성장을 주도하고 농림어업은 3.6%로 반등. 전기·가스·수도업은 화력발전 감소로 -0.4%
- 명목 GNI 9.4% 증가로 명목 GDP 증가율(8.0%) 상회 → 해외 노동력 송출 및 대러 파병에 따른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급증에 기인
- 1인당 GNI 187.3만원(남북 격차 28.1배). 대외교역은 수출 5억 달러·수입 27억 달러로 증가했고, 남북 반출입은 2023년 이후 전무
- 기초자료 검증의 어려움, 비공식 경제 미반영 가능성, 명목 GDP 국가 간 비교의 부적절성을 추정의 한계로 명시

○ 김현희(KDI), 「북한경제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 김정은 집권 14년간 실질 GDP는 4% 증가(2011=100 기준 2025년 104.1)했으나 2016년 정점보다 2.1% 낮은 수준. 2023~25년 평균 성장률 3.4%는 집권기 최고
- 대중 수출은 2016~17년 안보리 제재 이후 월 2.96억 달러(2016.12)에서 900만 달러(2018.2)로 97% 급감한 뒤 회복되지 않음. 수입은 2025년 월 1.9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 → 제재가 수출은 막았으나 수입은 막지 못함
- 2015~16년 대중 수출의 77%(39억 달러)를 차지하던 석탄·의류·수산물에 사라지고, 가발·속눈썹, 텅스텐광, 가탄제(제강용 탄소 첨가제) 등 제재 대상 외 품목이 대체. 최대 품목인 가발은 원료 수입(2.08억 달러)과 완제품 수출(2.05억 달러, 2025년)이 비슷한 위탁가공 구조로 실제 수취는 가공수수료 수준
- 텅스텐은 중국의 수출통제(2025.2) 이후 단가가 kg당 8달러에서 66달러로 올라 2026년 1~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의 6.7배(물량은 19% 감소). 추가 수입은 월 1,200만 달러로 월 1.94억 달러 수입대금에 비해 작아 환율 안정에는 역부족
- 소비재 수입 비중은 2026년 1~7월 45%(6.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달러 표시

곡물가격 하락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외화 보유층의 수요 증가로 해석

- 한은 시장물가지수(71개 품목, 5개 도시)는 2025년 4분기 212(2020=100)로 전년 대비 83% 상승. 2024.1~2026.7 원/달러 환율 6.90배, 쌀값 6.62배 상승에도 달러 표시 쌀값은 kg당 0.61→0.58달러로 하락 → 2023년 말 이후 국정임금 약 10배 인상에 따른 통화 팽창의 결과
- 쌀 수입(2023~25년 -89%)과 옥수수 생산(-11%)이 줄었는데도 달러 기준 곡물가격은 하락(쌀 -29%, 옥수수 -55%). 다만 2026년 1~7월 쌀 수입이 이미 2025년 연간의 84%이고 6월부터 달러 가격이 반등해 주시 필요
- 러시아의 북한 국적자 비자 발급은 2023년 20건에서 2025년 36,413건으로 급증, 이 중 35,849건이 유학 비자. 러시아 교육부 집계 북한 유학생은 약 130명에 불과 → 유학 비자를 통한 인력 송출 가능성 시사

○ 남진욱(KDI), 「북한 시장환율의 결정요인」

- 시장환율은 2013~19년 달러당 8,000원 안팎에서 안정됐으나 2024년 2분기부터 급등해 2026년 중반 6.4만원대 도달. 2년 반 사이 원화 가치 85~90% 하락
- 2017~19년에는 대중 수출이 92% 줄었는데도 통화 증발이 없었고 시장의 외화 완충·차익거래 기능이 작동해 환율이 안정됐던 것으로 분석
- 붕괴기에는 달러 표시 가격이 전 품목에서 하락(쌀 연 -15%)하고, 환율의 물가 전가(0.66)가 역방향 전가(0.14)를 크게 웃돌아 실물 부족보다 통화 요인이 원인임을 확인
- 3개 통화 현금경제 모형으로 5개 구조충격을 식별한 결과, 2024년 이후 절하는 통화(33%)·기대(12%) 요인이 주도하고 무역·대외 요인은 9%, 시장 단절은 1%에 그침. 2020~22년 원화 강세기에는 화폐 퇴장(33%), 무역·대외(30%), 시장 단절(22%)이 주요인
- 2023년 10월 이후 국정임금 인상과 건설사업 재원은 통화 발행으로 조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러 외화 수입은 국가 채널에 쏠리고 시장에는 공급되지 않은 것이 핵심 기제
- 시사점: 시장환율은 총외화수입이나 제재 효과의 지표로 해석하기 어렵고, 붕괴는 상당 부분 정책 선택의 결과로서 통화 발행 억제와 시장 외화 채널 재개로 중단 가능. 경제활동의 국가 부문 재편으로 환율과 실물경제의 연계는 과거보다 약화

○ Rachel Minyoung Lee(Stimson Center), 「9차 당대회 이후 북한 정치경제의 함의」

- 8차 당대회(2021)가 이전 계획의 '실패'를 인정한 회복 단계였다면, 9차 당대회는 '완수'를 선언하고 안정적 성장, 점진적 질적 발전, 인민생활 향상으로 목표를 옮김
- 새 계획에 지방발전 '20×10' 정책, 농촌발전, 주택·보건·공공서비스가 포함되면서 평양 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이 통치 성과의 증거로 제시됨. 그만큼 이행 실패의 정치적 부담도 커짐
- 3월 최고인민회의는 공업생산 1.5배 목표를 제시했으나 전력·석탄 병목은 여전하다고 평가
- 내각의 통일적 지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물질적 인센티브 등 시장 친화적 요소는 유지. 반면 당 정책 기준·상부 보고·무조건 관철·사상 강화 등 정치적 통제가 강해져 개혁 전망은 불투명
- 6월 전원회의의 재래식 무기·군수기업 확대, 해군기지 등 신규 군사기지 건설, 민간 건설에서 군 역할 확대 등으로 국방 부담 증가. 국방공업이 경제발전 전략에서 더 넓은 역할을 맡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 제시
- 제1·제2경제가 희소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내각 권한이 제한된 구조에서, 강화된 당 통제로 민생 공약과 국방 공약('사탕과 총알')을 함께 이행하면서 조정 능력과 제한적 경제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라고 결론

세션 2 (9.17) 산업·기업 구조와 군수공업

- Iliana Ragnone(Stimson Center), 「북한 산업 지형의 지리공간 분석」
 - 상용 위성영상(Planet, Vantor)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 군수 산업화, 중·러 접경 물류 인프라의 건설 진척을 추적
 - 20×10: 2024~26년 연도별 사업 입지를 지도화하고 강동·김형직·온천·연탄군 등의 피복·식료품·일용품 공장과 채소 온실 건설 현황 제시
 - 군수 산업화: 무인기 공장, 방현항공기공장의 부품·조립 시설, 강화 업체호 등 항공·무인기 관련 시설 확장 확인
 - 중·러 영향: 러시아 하산역 일대 공사와 도로 포장(2026.6~8월), 신의주?단둥 일대 컨테이너 적치 및 도로 재포장(2026.9월) 등 접경 물류 인프라 정비 진척
- 김규철(이화여대), 「북한경제 재조명: 기업·산업 자료로 본 구조적 증거」
 - 로동신문 등 공식매체 보도를 기업 단위 관측치로 구조화한 KIET 북한 산업·기업 DB(2000~2024년, 기업 3,973개, 관측치 153,047건)로 선별적 보도에 체계적인 경제 신호가 담겨 있는지 검증
 - 산업별 보도 비중과 한은 산업별 GDP 비중의 상관관계수 0.83, 투자 보도의

12~24개월 후 생산 보도 선행, 투자 보도 이후 12개월간 야간조도 평균 7.1% 증가로 신호의 신뢰성 확인

- 경공업은 기업 수의 45.4%를 차지하나 보도 비중은 23.1%에 그치고, 광업·에너지는 기업 비중의 2배 이상 보도 → 기업 분포와 정책 우선순위 간 괴리
- 산업 관련 보도 비중은 김정은 집권 전후 급증했다가 2017년 제재 이후 55%에서 40% 미만으로 하락. 같은 기간 정치·구호성 보도는 증가
- 석탄광 보도의 72.2%가 평안남도, 금속광은 함경남도(40%)·황해남도(23%)·함경북도(20%)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생산체계 확인
- 국가가 공개한 기업만 포착되는 선택 편향, 생산·매출·고용 등 기초 변수 부재, 농업·서비스·건설·비공식 시장 미포괄을 한계로 제시

- 탁성한(안보경영연구원), 「북한 방위산업 가동률 평가와 전망: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 무기 생산액 기반 직접추정치(1981~2006년)와 전력 이용률(발전량÷설비용량)의 관계를 회귀로 보정해 방위산업 가동률을 2024년까지 연장 추정
- 2024년 가동률 29.4%로 고난의 행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김정은 집권기 내내 30% 안팎 유지. 2022년 31%로 상승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이전분 보충을 위한 증산과 부합한다고 해석
- 2024년 발전량 253억 kWh로 1990년(277억 kWh)보다 적음. 수력 비중이 61.7%라 전기(11~4월) 발전량이 우기의 절반 수준이며, 주요 수력설비의 26.2%가 70년 이상 노후
- 설비 확충이 없다는 가정의 중간 시나리오에서 수력발전은 149억→110억 kWh, 가동률은 2050년 21.0%로 떨어져 고난의 행군기 저점에 근접할 전망
- 장기 재래식 소모전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어, 유사시 전기 이전 약 6개월 내 결판을 노린 초기 고강도 공세와 WMD 사용 가능성, 비대칭 전력 투자 지속을 예상. 전력망 개보수에 필요한 자본·기술 반입 통제가 제재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제시
- 전력 외 결정요인 미반영, 상관관계의 인과 해석 한계, 화력발전 미분석은 발표자 스스로 밝힌 한계

세션 3 (9.18) 디지털 경제·AI와 소득 분배

- Michael Barnhart(DTEX Systems), 「북한의 디지털 경제: 사이버 위협, AI, 불법 수익 창출」
- 노동당 군수공업부·경찰총국·국방성 등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조직 체계와 수익형·악성형 IT 인력 구분을 제시. 사이버 전문대학에서 경찰총국·국가보위성·

인민군으로 이어지는 인력 양성 경로 포함

- 2009~10년 초기 해킹조직(라자루스 등) 인력이 현재 간부층으로 성장. 2025년 현재는 악성 IT 인력, 가상자산 탈취, AI 조직(Unit 227), 위장회사 등으로 활동이 분화·확대
- 화상 면접에 대역 인물을 세우고 가상 카메라 도구로 영상을 조작하는 수법, 외부 인력 재하청, 가명 자금세탁책의 신원 추적 사례 소개
- 지휘 단위에서 위장회사까지의 자금 흐름과 조직별 명단(가명·실명·계좌) 추적. 군수공업부 연계 위장회사가 2024년 중반 러시아인과 IT 인력 최대 30명 파견을 위한 10년 계약을 맺은 사례 포함
- 내부 프로젝트 관리 자료상 웹 개발·블록체인 수주 비중이 크고, 결제의 약 3분의 2가 가상자산이며 발주처는 미국이 최다. 내부 채널에서 주간 실적 순위를 공지하는 등 실적 중심으로 운영
- 방어 측과 표적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적 추적·차단 필요성 강조

○ 이종민(국방대학교), 「북한의 인공지능: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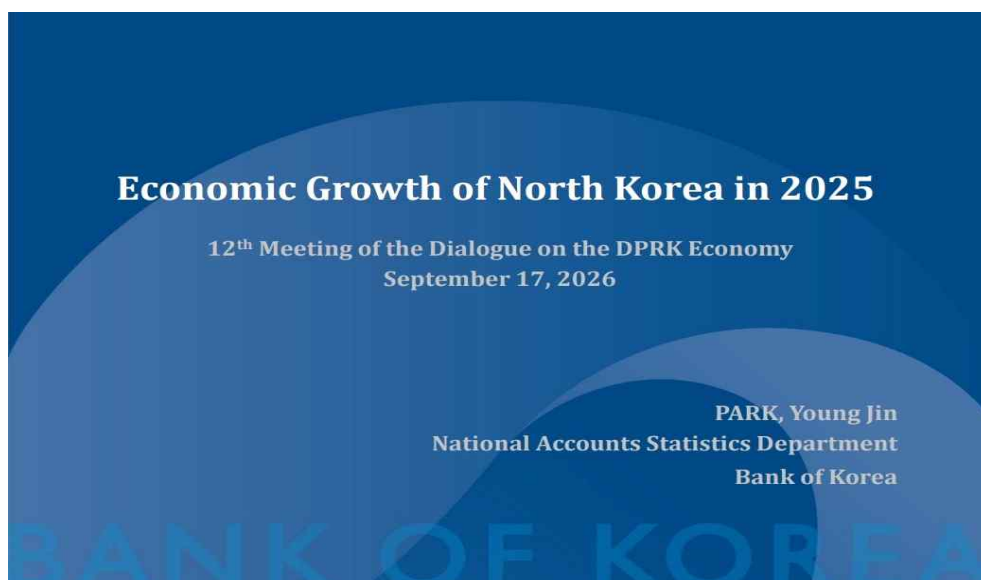
- 9차 당대회(2026.2)는 AI·우주·신에너지 산업을 '먼 앞날의 과업이 아닌 오늘의 현실'로 규정. 김정은은 AI를 ICBM급 능력과 같은 군사기술 과제로 분류해 전략무기 강화 수단으로 인식
- 1990년대 프로그램산업 육성, 2000년대 CNC화, 2010년대 이후 '수자경제'로 이어진 과학기술 중시 노선의 연장선에서 AI 도입 추진
- 대규모 인프라·자본이 필요한 분야를 피해 경량 모델과 생산 자동화에 집중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LLM을 폐쇄망 기반으로 재구성(김일성종합대학 자체 GPT, 인트라넷 B2B 플랫폼 '자강력' 등)
- 기술 수준은 범용 지능보다 산업별 자동화에 가깝고, 2017~23년 국제 학술지 AI 논문도 161편(44%가 해외 공저)에 불과. 다만 공개된 연구 상당수가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해 지속적 관찰 필요
- 데이터·하드웨어·전력(2024년 발전량 253억 kWh, 남한의 약 1/20) 부족, 사적 소유 없는 체제의 혁신 유인 부족, AI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력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제약 요인으로 지적
- 중국 AI 플랫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나 대중 종속 심화와 민감정보 유출·외부 정보 유입 위험이 따름. AI는 민간보다 전술 의사결정·교전 모의·화력 최적화 등 군사 분야에 먼저 적용되고, 중·러·이란과의 협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

○ 조용신(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의 비공식 부문과 소득 양극화: 탈북민

조사 분석」

- 시장화에 재산권·조세·사회안전망 등 시장 지원 제도가 뒤따르지 못한 '유사 시장화(quasi-marketization)' 환경에서 비공식 소득 분포의 형태 변화를 분석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탈북민 조사(2011~19년, 781명)의 비공식 소득으로 연도별 중위값 대비 절대편차를 검정. 2014년을 경계로 한 차례의 구조적 단절 확인(2017~18년 제재 시점은 유의하지 않음)
- 중위상대양극화지수(MRP) 0.255로 양극화 확대. 하위 꼬리 기여(0.179)가 상위 꼬리(0.076)의 2배를 넘어 하위 꼬리 확대가 양극화를 주도했으며, 성별·접경지역 여부·성향점수매칭 등 강건성 검정에서도 같은 결과
- 충격 요인으로 2014~15년 가뭄(5~8월 강수량 전국 -53%)에 따른 곡물 감소와 시장 쌀값 상승(2014년 말 +30%), 수력발전 감소(130억→100억 kWh),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소비재 수입 감소를 제시(성장률 2014년 1.0% → 2015년 -1.1%)
- 식량 수요의 낮은 가격탄력성과 가내 작업장 전력 공급 축소로 부담이 빈곤층에 집중. 자본·연줄을 가진 계층은 자가발전 등으로 충격을 회피
- 저소득층의 탈북 증가라는 표본선택을 가정해도 2014년 이후 하위층 취약성 확대라는 결론은 유지. 제도 부재로 경제가 회복돼도 양극화는 되돌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

별첨 발표 제목



12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September 17-18, 2026

Stylized Fact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Hyunhee Kim
Senior Research Associat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n Market Exchange Rate

What Is Breaking the North Korean Won?

Jinwook Na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2th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September 17, 2026

Political Economy Takeaways of the Ninth Party Congress and Beyond

12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SEPTEMBER 17, 2026)

Rachel Minyoung Lee
(rmlee@stimson.org)

Geospatial Analysis of North Korea's Industrial Landscape

Iliana Ragnone
Research Analyst, Stimson Center
Managing Editor, 38 North

12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Revisiting the DPRK Economy: Structural Evidence from Firms and Industries

Kyoochul Kim (Ewha Womans University)

2026. 09. 17.

North Korean Industry and the Implications of the Iran and Ukraine Wars

Victor Cha

President, Geopolitics and Foreign Policy Department and Korea Chair, CSIS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September 2026

Property of CSIS and Copyright: Victor Cha

CSIS | GEOPOLITICS AND FOREIGN
POLICY DEPARTMENT | KOREA
CHAIR

BRIEFING FOR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ssessment of North Korea's Defense Industrial Capacity Utilization and Future Outlook

An Assessment Through the Lens of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Sung Han TAK | Ph.D, Senior Researcher, North Korea Infrastructure Program
Security Management Institute (SMI)
sunghant@smi.re.kr

DTEX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Cyber Threats, AI, and Illicit Revenue Generation

Presenter: Michael "Barni" Barnhart

Date: 18 SEP 26

Artificial Intelligence in North Korea: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

Jongmin Le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2th Meeting of the Dialogue on the DPRK Economy
Sep. 18, 2026



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Economic Security Studies Team

INFORMAL SECTOR AND INCOME POLARIZATION IN NORTH KOREA

Insights from the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

Yongshin Cho

Economic Security Studies Team, Economic Research Institute, Bank of Korea
ycho32@bok.or.kr

* The views expressed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views of the Bank of Korea.